

압록강 연구를 위한 시론적 고찰

- '경계'의 개념을 중심으로 -

허우범(인하대 교수)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경계로서의 압록강 연구 시론
- IV. 압록강의 이동과 시대별 강역의 변동
- V. 맺음말

【국문초록】

압록강은 우리의 강역사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지리이다. 이제까지의 압록강 연구는 일정한 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강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연구하였다. 모든 지명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동하기 마련이다. 특히, 국경지대의 지명은 전쟁이나 반란 등을 통한 영토의 확장과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압록강은 고려 시대 이후 줄곧 국경의 역할을 하였다. 국경의 변화와 지명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압록강 역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은 어느 하나의 지정된 강으로만 보아서는 시대별 강역과 국경의 변동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 압록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일제가 반도사관을 확정한 이래 현재까지 계승해오고 있는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의 모순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대별 압록강의 이동에 따른 강역의 변화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아본다. 즉, '압록강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론적인 고찰인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압록강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압록강의 여러 이칭과 당대 역사지리를 분석함으로써 압록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 강역사에서 압록강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압록강, 이칭, 국경, 고구려, 고려, 조선

I. 머리말

압록강은 우리의 강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역사지리이다. 우리는 고대의 압록강을 현재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으로 비정하고, 이로부터 시대별 국경과 모든 역사지리를 한반도 안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고대의 사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압록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압록강이 고대부터의 압록강이라는 논리는 대일항쟁기 일본학자들이 반도사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대별 해당 사료의 분석이나 실증적인 검증 없이 작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이러한 비정을 마치 실증적인 것인 양 그대로 계승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일제가 반도사관을 확정한 이래 현재까지 계승해오고 있는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의 모순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대별 압록강의 이동에 따른 강역의 변화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아본다. 즉, ‘압록강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론적인 고찰인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압록강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압록강의 여러 이칭과 당대 역사지리를 분석함으로써 압록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 강역사에서 압록강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압록강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시대다. 압록강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방어하는 천참(天塹)¹⁾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강이다. 이러한 압록강의 위치에 대한 우리 학계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이루는 현재의 압록강이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라는 주장이다.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이 주장은 현재의 압록강은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는 입장인데, 사서에 기록된 모든 압록강은 오직 현재의 압록강뿐이라는 것이다. 이 학설은 대일항쟁기 일제가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몰아넣는 반도사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쓰다 소키치에서 시작되었으며²⁾ 해방 후 우리 학계가 이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왔다.³⁾

1) 『新唐書』東夷列傳 高句麗

有馬訾水出靺鞨之白山，色若鴨頭，號鴨渌水，歷國內城西，與鹽難水合，又西南至安市，入于海，而平壤在鴨渌東南，以巨艦濟人，因恃以爲塹。

2) 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2, 滿鐵, 1913.

3)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반도사관 구축에 필요한 사서는 정사뿐만 아니라 개인문집까지 낱알이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사』(1938)에는 식민사학자들이 참고한 사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한·

두 번째는 현재의 요하(遼河)가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최근 10여 년간의 연구 성과를 모은 것으로⁴⁾ 각종 사료의 검토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현재의 압록강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사서의 기록에 부합하는 압록강을 새롭게 비정한 것이다. 또한, 사서에 두 가지로 기록된 압록강⁵⁾은 서로 다른 강으로 보았다. 즉, 압록강(鴨綠江)은 현재의 요하로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며 고려 시대에는 국경선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압록강(鴨綠江)은 현재의 압록강을 말하며 이는 고려 시대의 후방방어선으로 보았다.⁶⁾ 이처럼 최근 신진 연구는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모두 요하로 보고 있고, 현재의 압록강은 고려의 후방방어선이자 조선시대의 국경선으로 비정하고 있다.

압록강은 고구려의 도읍지인 평양과 함께 거론되며, 고려 이후에는 국경으로서 그 비중이 큰 지명이다. 따라서 압록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우리의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강역을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그런데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요하이고, 조선 시대에는 현재의 압록강이라는 정의는 지명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한 것이다. 이는 압록강을 하나의 고유명사로 본 것이다.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국경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⁷⁾ 상관없지만, 고려 시대 이후의 압록강은 국경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강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전쟁과 반란 등으로 강역의 변동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국경의 변화가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국경의 역할을 하는 압록강도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 시대 이후의 압록강은 특정한 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경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강으로 보아야만 보다 합리적인 압록강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곧 ‘지명은 이동한다’는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일 등 모두 천 여 종에 이른다. 우리의 사료는 현재의 압록강이 고구려시대의 압록강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조선 후기 학자들의 사료를 많이 인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이다. 일본 식민사학자들은 이러한 사료를 활용하여 반도사관을 구축하였고, 이병도를 비롯한 이후의 학자들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4) 고광진, 최원호, 복기대, 「시론 ‘장백산’과 ‘압록수’의 위치 검토-고려 이전을 중심으로」, 『선도문화』 13, (국학연구원, 2012), 421-450쪽.; 남익현, 「중국의 중조변계사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압록수(압록강)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 5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25-75쪽.; 「장수왕의 평양성, 그리고 鴨綠水와 鴨綠江의 위치에 대한 시론적 접근」,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2, 2017), 83-119쪽.; 복기대, 「고구려 후기 평양위치 관련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2, 2017), 63-82쪽.; 윤한택, 「고려 서북 국경에 대하여-요·금 시대의 압록(鴨綠)과 압록(鴨綠)을 중심으로-」, 『압록(鴨綠)과 고려의 북계』,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연구총서3, 2017), 13-81쪽.; 「고려 서북 국경에 대하여」, 『고려 국경에서 평화 시대를 묻는다』, (더플랜, 2018), 90-163쪽.

- 5) 사서에는 ‘록’을 구분하여 鴨綠江과 鴨綠江으로 기록하고 있다.

- 6) 윤한택, 「고려 서북 국경에 대하여」, 『압록과 고려의 북계』 (서울:주류성, 2017), 13-80쪽.

윤한택은 압록강의 표기가 두 가지 인 것을 이유로 각각을 고려시대의 국경선(鴨綠江)과 후방방어선(鴨綠江)으로 보았다.

- 7)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고구려 강역 안에 있었다. 사서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의 서(북)쪽 방면 경계는 크게 두 가지이다. 『新唐書』(동이열전)에서는 ‘고려는 서북쪽으로 요수를 건너 영주와 접한다(高麗, 西北度遼水與營州接, 北靺鞨.)’고 하였고, 『龍飛御天歌』(17장)에서는 ‘고구려의 (서쪽)경계에 갈석이 있다(碣石在高麗界)’고 하였다.

III. 경계로서의 압록강 연구 시론

1. 역사지리에서의 지명

지명은 자연적인 지리의 일정한 영역에 범위를 지정하고 그에 적당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지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반영되는 법이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자의성(恣意性)을 지니고 있지만 지명은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된 근거가 특정한 사실과 결합하여 함축적으로 반영되는 유연성(有緣性)을 가진다.⁸⁾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소쉬르는 언어의 특징을 ‘기표(記標)’와 ‘기의(記意)’로 나누고 언어가 정체성을 가지면 이를 사용하는 사회의 관념이나 사상이 언어에 투영된다고 하였다.⁹⁾ 막스주의 언어철학자인 볼로쉬노프도 모든 언어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¹⁰⁾ 지명에는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명이야말로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한 지명의 여러 이름을 하나로 통일시켜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동일화하고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거주자들은 각자 그들의 영역에서 부르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바흐찐은 언어의 성격을 구심력과 원심력의 상호작용¹¹⁾으로 보았다. 즉, 위정자는 언어의 구심력을, 거주자는 언어의 원심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압록강이라는 지명은 바흐찐이 말한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있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압록강은 여러 이칭을 가지고 있다.¹²⁾ 압록강이라는 지명은 국가 간에 경계를 뜻하는 ‘표준화된’ 지명이다. 즉, 통치계급이 통일시킨 구심적인 이름이다. 이에 반하여 시대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이칭은 각각의 영역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이 부르는 원심적인 이름인 것이다. 토착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통치 집단의 변화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의 대표성을 지닌 구심적인 지명은 국가 간의 충돌에 따른 영토의 확장·축소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려 이후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지명의 특성과 법칙을 이해하고 살펴보아야만 보다 사실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8) 김순배, 류재현,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43-4, (2008), 615쪽.

9) ‘記標(signifiant)’는 음성이나 그림, 문자 등의 이미지를 말하며, ‘記意(signifie)’는 기표가 가리키는 개념을 뜻한다. ‘한국’을 나라마다 다른 언어로 쓰는 것은 ‘기표’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나라를 인지하는 것은 ‘기의’에 해당한다. (소쉬르 지음,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2006, 91-98쪽.)

10) 사회적 소통기호인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큼의 이데올로기가 개입한다는 이론으로 언어는 사회적 맥락이나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쉬노프 지음, 송기한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5, 26-30쪽.)

11) 이득재, 『바흐찐 읽기: 바흐찐의 사상·언어·문학』, (서울:문학과학사, 2003), 143-149쪽.

12) 압록강은 馬訾水, 安民江, 清河, 龍彎, 益州江, 狄江 등 여러 異稱을 가지고 있다.

2. 지명 이동과 압록강의 정의

이제까지의 학설은 평양과 압록강처럼 중요한 지명을 비정함에 있어서 시대와는 상관 없이 원래부터 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까닭에 고대의 지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선시대의 지명에 근거하여 비정하곤 하였다. 이는 시대에 따라 지명이 바뀌거나 이동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명의 이동은 한 국가의 강역 내에서도 이뤄지지만, 전쟁이나 반란 등을 통한 영토의 확장과 축소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는 국경의 변동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인 것이다. 특히, 국경지역의 지명은 이동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압록강은 고려 시대 이후 줄곧 국경의 역할을 한 강이다. 국경의 변화와 지명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압록강 역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은 어느 하나의 특정된 강으로 보아서는 시대별 강역의 변천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압록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압록강에 대한 개념과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압록강(鴨綠江)은 ‘물빛이 오리의 머리색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¹³⁾ 이러한 지명은 원래의 압록강 이름을 한자어로 음차하여 기록한 것을 영동하게 해석한 것이다.¹⁴⁾ 따라서 압록강의 원래 명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차한 한자를 ‘훈(訓)’으로 읽지 말고 본래 ‘음(音)’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만주어로 압록(鴨綠)의 발음은 ‘얄루(yalu)’다. 그 의미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yalu 𐮑 경계, 토지의 구역을 가르는 境界. (유익어)yalukū

*yalukū 𐮑 ①말을 타는 사람 ②사람이 타는 말 등의 가축

③境界, 邊境, 邊界, 地邊¹⁵⁾

한자어인 압록의 발음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경계(境界)’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익어인 ‘yalukū’에도 경계나 변경의 뜻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압록(鴨綠)’은 민족 간, 국가 간의 경계를 나누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유목민들은 초원의 풀을 찾아 이동한다. 초원에서의 경계는 짐승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강이 결정되면 그 강을 ‘얄루 올라(yalu ula)’로 불렀고, 이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압록강(鴨綠江)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⁶⁾

이처럼 압록강은 어느 특정한 강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경계에 있는 강을 의

13) 『新唐書』, 東夷列傳 ‘高麗’

有馬訾水出靺鞨之白山, 色若鴨頭, 號鴨綠水.

14) 청 건륭제의 칙명으로 편찬한 『欽定滿洲源流考』(1778)에서도 ‘사가들의 건강부회’라고 하였다.(按 鴨綠水其色如鴨頭 乃史家傳會之論.)

15) 이훈 편저,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924쪽.

16) 鴨綠(yalu)의 만주어 표기는 𐮑이다.

미하는 보통명사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즉, 압록강은 경계를 마주하는 두 정치집단의 정치군사적 힘의 변동에 따라 변화 가능한 강으로 봐야하는 것이다.¹⁷⁾ 아울러 이러한 경계의 의미를 지닌 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줄기만을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 국경선을 이루는 물줄기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물줄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보다 큰 강을 이루고, 이 강줄기가 경계의 끝 지점까지 흐를 때 정치적인 지명으로 통칭하여 ‘압록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712년 청 강희제는 오라총관 목극등에게 명하여 조선 측과 함께 장백산 일대를 답사하고 분수령에 양국의 국경을 표시한 정계비를 세웠다. 정계비의 내용은 분수령을 기점으로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고 하였다. 이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사서에서 압록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출백산(源出白山)’¹⁸⁾이라고 하였다. 이는 압록강의 출발점이 백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정계비의 ‘서위압록(西爲鴨綠)’은 서쪽으로 압록강이 된다는 의미이지 분수령에서 압록강이 발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서쪽으로 (여러 개의 물줄기가 이어져)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여러 개의 물줄기가 이어져) 토문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압록강은 처음부터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국경의 바다로 들어가는 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압록강까지 이어지는 경계는 여러 물줄기들이 서로 이어지고 합쳐져서 압록강으로 모여드는 지역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그동안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¹⁹⁾

현재의 압록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함경남도와 평안북도를 흘러 신의주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하나의 강줄기이다. 만약 18세기 초에도 현재의 압록강 줄기가 청과 조선의 경계였다면 ‘서위압록’이라고 하지 않고 ‘원출백(두)산’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는 곧 18세기 조선의 경계와 20세기 조선의 경계가 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경계로서의 압록강도 이동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3. 사서에 보이는 압록강 검토

사서에 보이는 압록강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었는데 압록수(鴨綠水:鴨綠水)와 압록강(鴨綠江:鴨綠江) 및 압강(鴨江)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록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같은 발음의 한자를 사용하거나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도 시대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다. <표1>은 주요 사서에 보이는 압록강의 표기를 조사한 것이다.²⁰⁾

17) 김영섭, 「고려 서북면 경계 재검토-강동6주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6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163쪽.

18) 『新唐書』와 『通典』,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出靺鞨之白山’이라고 하였고, 『武經總要』는 ‘源出白山’이라고 하였다.

19) 사서에서는 압록강이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편에 고려와 조선의 땅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朝鮮王朝實錄』「顯宗實錄」5, 현종 3년(1662년) 5월 17일.) 이는 경계로서의 압록강이란 강의 본류로 들어오는 지류의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20) 이 비교표는 한국의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중국의 경우는 ‘國學大師

<표1> 주요 사서별 압록강 관련 표기 현황

사서(史書)	압록수 (鴨渌水)	압록강 (鴨渌江)	압록수 (鴨綠水)	압록강 (鴨綠江)	압강 (鴨江)
삼국유사 (三國遺事)	○	-	○	-	-
삼국사기 (三國史記)	○	-	-	-	-
고려사(高麗史)	-	-	-	○	○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	-	-	○	○
수서(隋書)	-	-	○	-	-
구당서(舊唐書)	-	-	○	-	-
신당서(新唐書)	○	-	-	-	-
발해국기 (渤海國記)	○	○	-	-	-
송사(宋史)	-	○	-	○	-
요사(遼史)	-	○	-	○	-
금사(金史)	-	○	-	○	-
원사(元史)	-	○	-	○	-
명사(明史)	-	-	-	○	○
청사고(淸史稿)	-	-	-	○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발해 시기까지는 압록수(鴨渌水)의 기록이 많다.²¹⁾ 이후부터는 두 가지가 중복되어 사용되다가 압록강(鴨綠江)으로 통일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를 우리의 역사와 비교하면 고려와 조선시대다. 고려 시대에는 압록강(鴨渌江)과 압록강(鴨綠江)이 서로 사용되다가 조선 시대에는 압록강(鴨綠江)으로 일치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시대의 『삼국유사』는 두 표기가 함께 사용되었고, 조선 시대에 간행된 『고려사』²²⁾와 『조선왕조실록』은 압록강(鴨綠江)으로 통일되었다. 압강(鴨江)은 압록강을 축소해서 부른 것인데, 대체적으로 명·청, 조선시대에 제작된 사서에서 많이 보인다.²³⁾

<표1>을 종합하면 압록강은 시대에 따라 ‘鴨渌→鴨渌/鴨綠→鴨綠’의 순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계를 의미하는 압록강은 고려 이후부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를 두고 각각 별개의 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²⁴⁾ 필자는 앞에서

(<http://www.guoxuedashi.com>)’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1) 『隋書』와 『舊唐書』에서의 鴨綠水는 모두 15회, 『新唐書』와 『渤海國記』에서의 鴨渌水는 모두 52회가 사용되었다.

22) 『高麗史』는 조선 세종 31년(1449)에 편찬을 시작하여 문종 1년(1451)에 완성하였다.

23) 金의 관리인 왕적(王積)이 압록강을 둘러보고 기록한 『鴨江行部志』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는 이때부터 압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윤한택, 앞의 책, 13-80쪽.

국경의 변동에 따른 지명이동의 필연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자로 음차한 것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록(潑)’을 발음이 같은 한자인 ‘록(綠)’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로 쓰인 기록이라도 모두 경계의 뜻을 지닌 같은 강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의 사료를 분석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① 鴨潑江은 도사성 동쪽 560리에 있다.²⁵⁾

② 鴨綠江은 국성 서북쪽 1450리에 있다.²⁶⁾

위의 사료는 모두 『대명일통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²⁷⁾ <사료①>은 명나라 강역을 기록한 ‘산동·요동도지휘사사’에 있는 내용이고, <사료②>는 ‘외이·조선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압록강을 표기한 한자가 <사료①>은 압록강(鴨潑江)으로, <사료②>는 압록강(鴨綠江)으로 다르게 표기하였다. <사료①>의 도사성은 요양(遼陽)을 의미하고 <사료②>의 국성은 한성(漢城)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료①>의 압록강을 지도에서 확인하면 혼강이 흘러가는 환인지역이다.²⁸⁾ 그렇다면 <사료②>의 압록강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③ 의주목 : 서쪽은 압록강까지 14리 이고 북쪽은 같은 강까지 2리 이며, 서울(한성)에서는 1186리 떨어져 있다.²⁹⁾

<사료③>은 한성에서 압록강까지 1200리 거리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료②>와 비교하면 250리의 차이가 난다.³⁰⁾ 조선 초기의 의주나루는 현재 수풍댐이 있는 지역이었다.³¹⁾ 이곳에서 혼강이 흐르는 환인까지의 거리가 93km로 250리 거리이다. 이로 볼 때 <사료②>의 압록강도 환인지역의 혼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료에서 압록강을 다르게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압록’을 기록하는 한자가 시대적 변천과 맥락을 같이하여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압록(鴨潑)의 사용

윤희택은 鴨潑江은 철령 지역에서 요하로 들어가는 강을 일컬었고, 鴨綠江은 현재의 압록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5) 『大明一統志』, 「遼東都指揮使司」, 「鴨潑江」
在都司城東五百六十里.

26) 『大明一統志』, 「外夷 朝鮮國」, 「鴨綠江」
在國城西北一千四百五十里.

27) 『大明一統志』(1461년)는 명이 건국 후 자국의 전체 지리와 조공국의 지리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대명일통지』에 기록된 조선과의 국경은 연산관이며, 조선의 사신로 변경 요청을 빌미로 봉황성과 탕참까지 명의 강역에 포함시킨 내용은 『遼東志』(1537년)에 나타난다.

28) 明代의 10리는 5.6km였다. 요양에서 동쪽으로 560리는 桓仁지역에 해당되며 이곳을 흐르는 강은 渾江이다. 혼강은 현재의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환인은 요양의 正東쪽에 위치하며 560리는 313km이다. 요양에서 환인까지는 현재의 도로로도 280km이다. (吳洛, 『中國度量衡史』, 경인문화사, 1989.)

29) 『新增東國輿地勝覽』第53卷, 「義州牧」
西至鴨綠江十四里 北至同江二里. 距京都一千一百八十六里.

30) 조선 초기의 10리는 3.74km였다. 따라서 250리는 현재거리로 93.5km이다. (김상보·나영아, 「고대 한국의 도량형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4, (1994), 7-12쪽.)

31) 이곳은 북한의 朔州와 연결되는 곳으로 일제가 만든 압록강 斷橋가 남아 있다.

이 우세하다가 중기에는 압록(鴨綠)과 압록(鴨綠)이 함께 사용되고, 후기에는 압록(鴨綠)이란 한자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압록강의 이칭과 의미

압록강의 이칭은 마자수(馬訾水), 청하(淸河), 용만(龍灣), 익주강(益州江), 안민강(安民江), 적강(狄江)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우리는 이러한 이칭은 모두 현재의 의주와 압록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지의 특성상 이러한 이칭은 시대별로 불리던 이름들이 오랜 시기를 거치며 누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리지는 새로운 국가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난 후, 앞 시대의 지리지를 참고하여 자국의 지리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편찬하기 때문이다.³²⁾ 이때 전 시대의 지리 기록은 압축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당대 기록은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 지리의 왜곡이 일어나기 쉽고,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대에 걸쳐서 축적되면 전혀 다른 역사지리로 이해하게 된다. 압록강의 이칭은 바로 이러한 지리지의 편찬과정에서 가장 왜곡되기 쉬운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여러 이칭들을 모두 한 지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이칭은 압록강이 시대별로 이동하였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의 이칭을 살펴보려면 이칭이 기록된 당대의 사서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록강의 이칭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에는 마자수, 발해시대에는 청하, 고려시대에는 용만, 익주강, 안민강 등으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적강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³³⁾ 압록강의 이칭이 고려시대에 많은 것은 경계로서의 압록강의 이동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압록강의 이칭은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칭은 정치집단이 표준화한 지명인 압록강과는 상관없이 그 지역의 토속민들이 부르는 ‘원시적인 지명’이며, 지리지는 이러한 이칭들을 시대와 상관없이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이칭은 국경의 변동에 따라 새롭게 ‘표준화한’ 지명인 압록강에 대하여 그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려온 토속어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5. 압록강의 이칭과 위치 검토

마자수(馬訾水)는 사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압록강의 이칭이다. 고구려 시대의 압

32) 지리지의 편찬방식과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책을 참조.

허우범, 『여말선초 서북 국경과 위화도』, (서울:책문, 2021), 105-107쪽.

33) 鴨綠江의 첫 번째 이칭은 馬訾水인데, 이는『新唐書』에 기록되어 있다. 淸河는 현 요녕성 개원시를 흐르는 寇河로 이해된다. 龍灣은 고려시대 義州의 이름이기도 하며, 益州江은 金太祖가 요나라의 黃龍府를 공격할 때 건넌 강으로 고려와의 경계지점에 있었고, 安民江은 『三國遺事』에 기록된 이칭으로 발해시대까지 압록강이었던 요하를 말하며, 狄江은 조선시대 압록강의 지류 중 하나인 靺河를 말한다. (고광진은 압록강의 이칭을 고대로부터 조선 후기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고구려시대의 압록수 위치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10-18쪽.)

록강은 고구려 강역 안에 있는 강으로 경계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위치를 검토하지 않는다.³⁴⁾ 다만, 발해 이후 시대의 압록강은 경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논지 전개를 위하여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필자는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최근의 연구 성과인 요하(遼河)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강을 기준으로 이후의 압록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압록강의 이칭이 기록된 『고려사』 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주(義州)는 본래 고려의 용만현(龍灣縣)으로, 또 화의(和義)라고도 부른다. 처음에 거란이 압록강의 동쪽 언덕에 성을 쌓고 보주(保州)라고 불렀는데, 문종대에 거란이 또 궁구문(弓口門)을 두면서 포주(抱州)라고 불렀다.【파주(把州)라고도 한다.】예종 12년(1117)에 요의 자사 상호손이 도통 야율녕 등과 함께 금 병사를 피해 바닷길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덕성(寧德城)에 문서를 보내어 내원성(來遠城)과 포주(抱州)를 우리에게 귀속시키니 우리 병사가 그 성에 들어가서 병장기·재물과 곡물을 수습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의주방어사(義州防禦使)로 고치고 남쪽 지방의 인호(人戶)를 데려다가 그곳을 채웠다. 이때에 다시 압록강을 경계로 관방을 설치하였다. 인종 4년(1126)에 금도 역시 의주를 우리에게 귀속시켰다. 고종 8년(1221)에 반역이 일어났다 하여 함신(咸新)으로 강등시켰다가 얼마 후에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공민왕 15년(1366)에 목(牧)으로 승격시켰다. 18년(1368)에 만호부를 두었다. 별호는 용만이다. 압록강이 있다【마자수(馬訥水) 혹은 청하(靑河)라고도 한다.】³⁵⁾

압록강 이칭으로 마자수 다음에 기록된 청하(淸河)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하는 지리지 편찬의 특성상 고구려 시대 이후의 이칭으로 볼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이 이칭의 사용은 발해 이후 고려 시대까지로 볼 수 있다. 청하는 『응제시주』³⁷⁾에서 설명하기를 “부여성(扶餘城)의 북쪽에 있으며 지금의 압록강”³⁸⁾이라고 하였다. 부여성은 길림성 농안현으로 이곳의 북쪽은 이통하가 송화강과 만난다.³⁹⁾

『고려사·지리지』에서 의주(義州)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의 용만(龍灣)현이며

34) 요하가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라는 입장에서 마자수를 살펴보면 현재의 서요하에 비정할 수 있다. 현 학계는 고구려의 서쪽 경계를 요하로 비정하고 있다. 이는 『신당서』에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요수를 건너 영주와 접한다’는 기록의 요수를 현재의 요하로 보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에서는 고구려의 서쪽 경계를 ‘礪石’이라고 하였다. 두 사서의 기록이 일치하려면 遼水는 현재의 요령성 遼河가 아닌 하북성 灤河이어야 한다.

35) 『高麗史』卷58. 志12, 地理3, 北界 義州.

義州本高麗龍灣縣, 又名和義. 初契丹置城于鴨綠江東岸, 稱保州, 文宗朝, 契丹又設弓口門, 稱抱州【一云把州】. 睿宗十二年, 遼刺史常孝孫, 與都統耶律寧等, 避金兵, 泛海而遁, 移文于我寧德城, 以來遠城及抱州, 歸我, 我兵入其城, 收拾兵仗·錢穀. 王悅, 改爲義州防禦使, 推刷南界人戶, 以實之. 於是, 復以鴨綠江爲界, 置關防. 仁宗四年, 金亦以州歸之. 高宗八年, 以叛逆, 降稱咸新, 尋復古. 恭愍王十五年, 陞爲牧. 十八年, 置萬戶府. 別號龍灣. 有鴨綠江【一云馬訥水, 一云靑河】

36) 고구려 시기의 사서에 압록강 이칭은 馬訥水만 기록되어 있다.

37) 『應制詩注』는 조선 초기인 1461년, 명 태조 주원장의 명에 따라 권근이 지은 시에 대하여 손자인 권람이 註釋을 붙인 책이다.

3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應制詩注』, 009b

扶餘城北有靑河. 今鴨綠江也.

39) 최근의 연구는 청하를 요령성의 개원시 남쪽을 지나 요하와 만나는 구하(寇河)로 보기도 한다. (김영섭, 앞의 논문, 177쪽 참조)

압록강이 있다고 하였다. 즉, 압록강이 있는 의주의 이칭이 용만인 것이다. 용만은 고려 초기의 의주를 살펴보면 있어서 중요한 역사지리인데 그 위치는 『길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안현 : 토속민들이 쓰는 이름은 용만(龍灣)이다. 현의 치소 가까이에 고탑(古塔)이 있다. 요 성종 때 세운 용안탑(龍安塔)을 일컫는데, 음이 와전되고 또 농안(農安)과 비슷하여 현의 이름이 되기에 이르렀다. 당 시대에는 발해 대씨의 상경 부여부였다. 요 시대에는 황룡부였다. 금 시대에는 제주라고 하였다. (중략) 농안현 경내는 평원이며 왼쪽으로 송화강이 흐르고 이동하가 연결된다. 역마(驛馬)가 두 강을 따라 가면서 강과 평야를 교차하는데 몽골과 만주의 인후(咽喉)이다. 요금 시대에는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다.⁴⁰⁾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의 용만현은 현재의 길림성 농안현(農安縣)이었고 따라서 『고려사·지리지』의 내용대로 고려 초기의 의주도 이곳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내용은 ‘요금시대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다.’는 부분이다. 이는 고려와 요의 세 차례에 걸친 전쟁과 금 태조가 요의 황룡부를 공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 초기의 의주가 농안현이라면 국경인 압록강도 이곳에 있어야만 한다. 이는 다음의 사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① 거란주가 발해를 공격하여 그 부여성을 빼앗았다. 부여성은 당나라 때 고구려의 부여성이다. 고려왕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 혼동강을 경계로 하여 지켰으나 혼동강의 서쪽은 진출하지 못하였다. 옛 부여성은 발해국에 속하였는데, 혼동강은 곧 압록수이다.⁴¹⁾

② 경인일에 압록강(鴨綠江)과 혼동강(混同江)의 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혼동강 주변에 거주하는 변방 지역 주민들을 구휼하고 이주시키라고 명하였다.⁴²⁾

③ 빈주(賓州) 회화군(懷化軍) : 절도사를 두었다. 본래는 발해성이었다. 통화 17년(999)에 울야(兀惹)의 민호를 옮겨오고 압자하(鴨子河)와 혼동강(混同江) 두 강 사이에 자사주를 둔 뒤에 절도사주로 승격시켰다. 병사에 관한 일은 황룡부도부서사 소속이었다.⁴³⁾

40) 『吉林地志』 農安縣

土名龍灣. 縣治旁古塔, 建于遼聖宗時, 相稱龍安塔, 音訛又似農安, 遂爲縣名. 唐時渤海大氏上京之扶餘府. 遼爲黃龍府. 金濟州. (中略) 境內盡屬平原, 當松花江左, 而扼伊通, 驛馬二河之委流, 川原交錯, 蒙滿咽喉. 遼金時代爲四戰之地.

41) 胡三省注, 『資治通鑑』卷第275, 「後唐紀」4

契丹主攻渤海, 拔其扶餘城, 即唐高麗之扶餘城也. 時高麗王王建有國, 限混同江而守之, 混同江之西不能有其地, 故扶餘城屬渤海國. 混同江即鴨綠水.

42) 『金史』卷3, 「本紀」第3, 太宗 10年 4月

庚寅, 聞鴨綠, 混同江暴漲, 命賑徙戍邊戶在混同江者.

43) 『遼史』卷37, 「志」第7, 地理志1 東京道

賓州懷化軍, 節度. 本渤海城. 統和十七年, 遷兀惹戶, 置刺史于鴨子, 混同二水之間, 後升. 兵事隸黃龍府都部署司.

<사료①>에서 말하는 혼동강은 송화강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록에서 말하는 압록수는 송화강임을 알 수 있다. 농안현 지역은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화강이 흐르고 송화강 왼쪽으로는 길림합달령에서 발원한 이통하가 흘러와 농안현에서 송화강과 합류한다. 이 지역이 고구려 시대의 용만이고 고려 초기의 의주인 것이다. 이곳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 이유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이 ‘몽골과 만주가 요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즉, 송눈평원에서 내려오는 세력과 흑룡강 및 삼강평원에서 나오는 세력이 발해만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농안현은 송화강과 이통하가 연결되는 곳으로 배를 통해서도 발해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⁴⁴⁾ 그렇기 때문에 요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고려를 공격하였던 것이고 고려도 이곳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사료①>의 내용대로 송화강을 고려 시대의 압록강으로 본다면 <사료②>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압록강과 혼동강은 서로 다른 강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강이 갑자기 홍수가 났다는 것으로 보아 압록강은 혼동강인 송화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③>은 혼동강과 가까운 강이 압자하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료①>에서 말하는 압록강은 송화강이 아니고 송화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압자하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압자하가 압록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④ 개태 3년(1014) 6월 여름에 국구상온 소적렬과 동경유수 야율단석 등에게 조서를 내려 ‘고려를 토벌하기 위해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만들고, 보주(保州)·선의주(宣義州)·정원주(定遠州) 등에 성을 쌓으라.’고 하였다.⁴⁵⁾

⑤ 보주(保州) 선의군(宣義軍) : 절도사를 두었다. 고려가 주를 설치하였으며, 옛날에 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내원현(來遠縣)이다. 성종이 고려의 왕순(王詢; 현종)이 제멋대로 왕위에 올랐다하여 그 죄를 물었으나 듣지 않다가 통화말 고려가 항복하자, 개태 3년(1014)에 그 나라의 보주와 정주를 차지하고 그곳에 각장(樵場)을 설치하였다. 동경통군사에 예속되었다. 주와 군 2, 현 1을 거느렸다.⁴⁶⁾

⑥ 선주(宣州) 정원군(定遠軍) : 자사를 두었다. 개태 3년(1014)에 한족 민호를 옮겨 주를 설치하였다. 보주에 예속되었다.⁴⁷⁾

44) 『吉林地志』 依通縣

土名伊通. 吉林瀋陽間交通, 伊通驛适扼其中.

45) 『遼史』卷15, 「本紀」第15, 聖宗6

(開泰 三年) 六月. 是夏, 詔國舅詳穩蕭敵烈, 東京留守耶律圖石等討高麗, 造浮梁于鴨綠江, 城保·宣義·定遠等州.

46) 『遼史』卷38, 「志」第8, 地理2

保州, 宣義軍, 節度. 高麗置州, 故縣一, 曰來遠. 聖宗以高麗王詢擅立, 問罪不服, 統和末, 高麗降, 開泰三年取其保定二州, 於此置樵場. 隸東京統軍司. 統州軍二, 縣一:

47) 『遼史』卷38, 「志」第8, 地理2

宣州定遠軍, 刺史. 開泰三年徙漢戶置. 隸保州.

⑦ 성종 태평 4년(1024) 2월, (성종이) 달로하에서 사냥을 하였다. 조칙을 내려 압자하를 혼동강으로, 달로하를 장춘하로 바꿨다.⁴⁸⁾

요 성종은 993년 고려를 공격하여 압록강 동쪽 땅을 빼앗고 고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의 서희는 요의 소손녕과의 담판으로 요가 빼앗았던 280리의 땅을 돌려받았다.⁴⁹⁾ 1010년, 요 성종은 압록강 동쪽 땅을 다시 차지하고자 고려를 재차 침입하여 공방을 계속하다가 1014년에 보주 등 세 지역을 차지하였다. <사료④>는 요 성종이 고려의 보주 등을 다시 빼앗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는 요에 사신을 보내 세 지역의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며 다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요 성종은 고려의 요청을 묵살하고 아예 자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버렸다. <사료⑤>와 <사료⑥>은 요 성종이 고려에게서 빼앗은 땅을 보주(保州)와 선주(宣州)로 바꿨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 성종은 압록강의 명칭도 바꿔버렸다. <사료⑦>은 이러한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혼동강으로 바꾼 강의 이름이 압록강이 아니고 압자하(鴨子河)이다. 압자하는 압록강이 아니다. 하지만 『요사』에 압록강과 압자하가 나타나는 시간적 과정을 살펴보면 압록강을 압자하로 바꾼 정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요사』에서 압록강은 <사료④>의 기록 이후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⁵⁰⁾ 즉, 요 성종이 1014년에 고려의 보주, 선의주, 정원주를 다시 차지한 후, 지명을 개칭함과 동시에 고려가 압록강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압자하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계를 의미하는 압록강은 ‘鴨(yal)’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가 압록강을 압자하로 고쳐도 고려와 여진은 여전히 압록강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요 성종은 압자하를 다시 혼동강으로 고쳐서 ‘압록(鴨淥)’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다고 생각된다. 요 성종의 이러한 행적은 1014년의 압록강 기록을 마지막으로 10년 후인 1024년에 압자하가 나타나고 이를 다시 혼동강으로 고치는 일련의 연대기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앞에서 살펴본 호삼성(<사료①>)의 설명에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주가 농안현이고 압록강이 혼동강과 가까운 강이라면 농안현을 지나 혼동강인 송화강으로 들어가는 이통하(伊通河)가 요 성종이 압자하로 개명한 압록강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압록강과 혼동강에 홍수가 나서 강 주변에 사는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규휼하였다는 <사료②>의 내용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려와 요의 국경인 압록강은 현재의 이통하로 보아야 하고, 보주는 농안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민강(安民江)은 『삼국유사』에 나온다. 고구려의 안시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요수의 다른 이름은 압록인데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부른다’⁵¹⁾는 구절이 있다. 『삼국유

48) 『遼史』卷16, 「本紀」第16, 聖宗7

太平四年 二月己未朔, 獵撻魯河. 詔改鴨子河曰混同江, 撻魯河曰長春河.

49) 『遼史』卷13, 本紀13, 聖宗4

(正月)高麗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鴨淥江東數百里地賜之.

50) 대강(大康) 4년(1078)에 ‘압록강(鴨淥江)’이 한 번 나오지만 이는 고려의 사신이 요에게 압록강 동쪽을 하사해 달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遼史』卷23, 「本紀」第23, 道宗3)

51) 『三國遺事』卷3, ‘興法’

사』는 원대(元代)인 1281년에 편찬된 사서로 여기서 말하는 요수는 현재의 요하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일연이 말하는 압록강은 요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금에 이은 원 시대의 요하는 압록강이 아닌 안민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계의 강인 압록강의 기능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금 시대의 동경은 현재의 요령성 요양이었다. 요양은 요하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즉, 요·금·원이 요양을 차지하면 요하는 그 나라의 영토에 포함된다. 따라서 고려의 입장에서는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일연도 ‘옛날에 압록강’이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고구려의 압록강이 안민강으로 불린 시기는 금대(金代) 이후로 볼 수 있다. 요는 고구려의 땅인 요양을 차지하고 압록강을 ‘요나라의 강(遼河)’으로 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이 요 때에는 요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민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려와 요·금 시대에 줄곧 국경이었고 요와는 세 번의 전쟁을 치른 압록강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앞에서 의주의 이칭인 용만은 현재의 길림성 농안현임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이 고려와 요가 보주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른 곳이며, 따라서 이 지역을 흐르는 이통하가 고려와 요·금 시대의 국경인 압록강인 것이다. 즉, 고려시대에 경계로서의 압록강의 이동이 생긴 것이다.

압록강의 또 다른 이칭인 익주강(益州江)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익주강과 관련된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⑧ 압록강은 일명 익주강(益州江)이다. 곧 익주는 실제 압록강과 가깝다. 그러므로 당연히 장백산의 서남쪽에 있다. 요나라가 고쳐서 황룡부(黃龍府)에 속하게 하였다.⁵²⁾

⑨ 수국(收國) 원년(1115) 정월 병자일에 황제가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황룡부(黃龍府)를 공격하러 나갔다. 익주(益州)에 이르자 익주 사람들이 황룡부로 달려가 보위(保衛)하였다. 이에 익주의 남은 백성들을 취하여 돌아왔다.⁵³⁾

⑩ 수국(收國) 원년(1115) 8월 무술일에 황제가 친히 황룡부(黃龍府)를 정벌하였다. 혼동강(混同江)에 이르렀을 때 배가 없었다. 황제는 한 사람을 시켜 앞에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는 자백마(赭白馬)를 타고 물을 건너며 말하기를 “내 채찍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 전진하라.”라고 하였다. 각 군이 그 뒤를 따라가니 물의 깊이는 말의 배를 넘지 않았다. (중략) 9월에 황룡부를 함락시키고 사랄(辭剌)을 요나라로 돌려보낸 뒤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혼동강에 이르러 물을 건넘이 예전과 같았다.⁵⁴⁾

遼水一名鴨綠, 今云安民江.

52) 『欽定滿洲源流考』上, 卷10, 益州

鴨綠江 一名益州江, 則益州實與鴨綠江近. 當在長白山西南, 遼改屬黃龍府.

53) 『金史』卷2, 「本紀」第2, 太祖 收國元年 1月 丙子

收國元年正月丙子, 上自將攻黃龍府, 進臨益州. 州人走保黃龍, 取其餘民以歸.

54) 『金史』卷2, 「本紀」第2, 太祖 收國元年 8月 戊戌

收國元年, 八月戊戌, 上親征黃龍府. 次混同江, 無舟, 上使一人道前, 乘赭白馬徑涉, 曰視吾鞭所指而行. 諸軍隨之, 水及馬腹. (中略) 九月, 克黃龍府, 遣辭剌還, 遂班師. 至江, 徑渡如前.

필자는 <사료②>를 설명하면서 압록강과 혼동강은 서로 가까이 있는 강임을 살펴 보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의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료⑧>에서 압록강의 또 다른 이칭이 의주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주강은 요가 발해의 부여부를 빼앗아 개칭한 황룡부에 속하는 곳에 위치한다. 황룡부는 농안현을 말한다. 따라서 의주는 농안현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료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료⑩>은 금 태조가 요의 황룡부를 함락시킨 내용이다. 이때 황룡부를 공격하기 위해 혼동강을 건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압록강의 이칭인 의주강도 앞에서 살펴본 이통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와 금과의 국경도 이통하 일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적강(狄江)이라는 이칭은 조선시대에 나타난다.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는 조선과 명의 국경에 위치하였다.⁵⁵⁾ 이러한 까닭에 중국인들이 수시로 월경(越境)하여 위화도에서 농사를 짓게 되자 이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선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위화도의 위치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보인다.

⑪ (우의정)이극균(李克均)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압록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의주 활동(闊洞) 앞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지는데, 한 갈래는 바로 적강(狄江)으로 흐르고 한 갈래는 의주성 밑을 끼고 서쪽으로 흐릅니다. 여기에 탄자도(灘子島)·어적도(於赤島)·위화도(威化島)·검동도(黔同島) 등 네 개의 섬이 두 갈래의 사이에 들어있습니다.”⁵⁶⁾

⑫ 위화도(威化島) : 검동도의 아래에 있는데 둘레가 40리 이다. 두 섬 사이를 압록강의 지류가 가로막고 있는데 굴포(掘浦)라고 일컫고 주성(州城)에서 25리 떨어져 있다.⁵⁷⁾

⑬ 대개 이 초하(草河)와 애하(愛河) 두 물이 합쳐 들어오는 곳은 바로 소방(小邦:조선)의 변계(邊界)인데 소방의 변방 백성들 중에 이따금 완악한 자가 많아 조금만 편리한 기회가 있으면 틈을 타서 문득 다시 간사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⁵⁸⁾

<사료⑪>은 조선시대의 압록강 물줄기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현재의 압록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압록강이 의주 활동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적강으로 흐르고, 또 한 갈래는 의주성 밑으로 흐른다고 하였다. 현재의 의주와

55) 조선 건국의 발상지가 된 위화도는 현재의 압록강 안의 하중도가 아니라 압록강의 훨씬 위쪽인 중국 요령성 관전만족자치현 서점자에 있다. 현재의 압록강 너머까지 조선의 강역이었다.(허우범, 「위화도 위치의 재고찰」, 『인문과학연구』6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217-259쪽. 참조)

56) 『朝鮮王朝實錄』「燕山君日記」40, 연산 7년 5월 6일.

‘李克均又啓, “平安道 鴨綠江西流至義州 濶洞前而分流, 一派則直走狄江, 一派則傍義州城底而西. 以此, 灘子、於赤、威化、黔同等島, 隔在兩江之間.”’

57) 『新增東國輿地勝覽』53 「의주목」 ‘검동도’, ‘위화도’

‘威化島: 在黔同島之下周四十里. 兩島之間有鴨江支流, 隔焉稱爲掘浦, 距州城二十五里.’

58) 『朝鮮王朝實錄』「英祖實錄」29, 영조 7년 6월 29일.

‘蓋此草, 愛兩河匯入之地, 卽係小邦邊界, 而小邦邊氓, 間多頑黠, 稍得乘便, 輒復生奸.’

압록강으로 이 기록을 살펴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설명에 맞는 강은 혼강(渾江)이다. 즉, 혼강이 환인에서 관전현으로 흐르다가 한 줄기가 서쪽으로 흘러 적강(狄江)에 연결되고, 또 한 줄기는 현재의 압록강과 연결되어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적강은 현재의 애하(愛河)이다. 의주와 위화도는 이 사이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현재의 압록강 위쪽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사료⑩>는 위화도가 압록강의 지류(굴포)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두 사료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압록강의 이칭이 적강(애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록강의 이칭이 적강이라는 것은 현재의 압록강을 넘어 애하까지 조선의 강역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며(사료⑬), 이는 한 국가의 강역은 압록강의 본류로 들어오는 지류의 지역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대(清代)의 사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압록강 ; 길림성의 남쪽 977리에 있다. 장백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으로 흐르며 조선과 경계를 나눈다. 봉황성에 이르러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중략) 일명 익주강이라고 하며 혹 애강이라고도 부른다.⁵⁹⁾

이제까지 경계로서의 압록강의 이칭과 그것이 가리키는 장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압록강의 이칭과 그 장소

이칭명	최초/전거 사료	관련 지명	비정 사료
마자수 (馬訾水)	통전, 신당서	-	(고구려)
안민강 (安民江)	삼국유사	요하	삼국유사
압자하 (鴨子河)	요사 본기 성종	이통하	요사 지리지 상경도
혼동강 (混同江)	자치통감	송화강	자치통감
용만 (龍灣)	고려사 지리지	농안현	길림지지
청하 (淸河)	고려사 지리지	부여성 북쪽(농안현)	응제시주
익주강 (益州江)	거란국지	발해부여부(농안)	만주원류고
적강 (狄江)	조선왕조실록	애하	조선왕조실록
애하 (愛河)	대청일통지	애하	대청일통지

59) 『钦定大清一统志』 卷45

鴨綠江, 在吉林城南九百七十七里. 源出长白山, 西南流与朝鲜分界, 至凤凰城 东南入海. (中略) 通志 一名益州江 或呼 愛江.

IV. 압록강의 이동과 시대별 강역의 변동

국가 간의 경계는 하나의 강만으로 정확하게 연결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하나의 강이 경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거나, 서로 다른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는 분수령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계를 의미하는 압록강 연구는 하나의 강만을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 필자가 앞에서 청 강희제가 조선과의 경계에 세운 정계비의 내용을 ‘서쪽으로 여러 개의 물줄기가 이어져 압록강이 된다.(西爲鴨綠)’고 본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압록강을 연구할 때 그것이 어느 강인가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즉, 고유명사로서 ‘하나의’ 강에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압록강이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압록강이었다거나, 고구려와 고려 시대의 압록강이 요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자는 현재의 지명이 마치 고대부터 있어온 지명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고구려 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압록강과 관련된 주요 역사지리의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⁶⁰⁾ 이는 모두 압록강을 고유명사로 살펴 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압록강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압록강을 일반명사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살펴본 압록강의 이칭과 그 위치의 변동을 통해 고려 이후 조선 시대까지의 국경과 강역의 변천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려 초기의 압록강

고려 시대 초기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요와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993년, 요의 소손녕은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여 압록강 동쪽 땅을 빼앗고 고려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하였다. 고려는 서희를 보내 강화(講和)를 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新羅)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宋)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해 바치고 조빙(朝聘)에 힘쓴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하였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요(遼)의 동경(東京)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말하는가? 게다가 압록강(鴨綠江)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女眞)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

60) 예를 들면, 고려 서경이나 의주 등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압록강을 요하로 비정할 경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경이 있어야 하고, 의주는 더더욱 요하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서경이 요양이라거나, 고려의 보주와 의주의 비정 위치가 상당히 멀리 떨어졌음에도 보주가 의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등은 요동반도의 자연지형을 고려해 볼 때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 하지 않겠는가? 장군께서 만일 나의 말을 천자에게 전달해 준다면, 어찌 〈천자께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⁶¹⁾

소손녕의 말에 대한 서희의 반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호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 받은 것이며 강역도 고구려의 옛 땅에 있다. 따라서 요가 차지하고 있는 요양도 따지고 보면 고려의 땅이어야 한다. 둘째, 압록강의 안팎도 고려의 땅인데 여진이 우리의 땅을 훔쳐 살고 있어서 조빙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준다면 자연스럽게 조빙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손녕은 서희의 주장에 따라 압록강 동쪽 땅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동경인 요양 일대는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요하였다. 그런데 필자는 앞에서 고려 초기 요와의 전쟁이 벌어진 압록강은 현재의 이통하이고 고려의 보주는 농안현 지역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압록강과 고려 초기의 압록강은 다른 것인가. 압록강을 고유명사로 인식하고 보면 서로 다른 강이지만 일반명사로 인식하면 같은 경계선상의 강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은 요하에서 이통하를 거쳐 송화강까지 연결되는 강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 압록강은 각각의 지역에 사는 토속민들이 부르는 이름인 ‘마자수’, ‘용만’, ‘압자하’, ‘혼동강’, ‘익주하’가 시대를 지나며 이칭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하에서 송화강까지 연결된 압록강 물길은 발해 시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요가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변동이 발생한다. 요는 소손녕의 기록에서 보듯이 요양을 차지하고 동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구려하⁶²⁾ 지역의 압록강을 요하로 바꿔버렸다. 더 나아가 이통하 지역의 압록강도 압자하로, 다시 혼동강으로 바꿨다. 금 태조가 황룡부를 공격할 때에는 황룡부 인근에 위치한 익주의 지명을 따서 익주강으로도 불렀다. 하지만 요를 멸망시킨 금은 고려가 해주 지역 일대를 수복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통하 지역은 다시 압록강이 되어 고려와 금의 국경이 된다.⁶³⁾ 고려 초기는 발해 시대까지

61) 『高麗史』卷94, 列傳7, 諸臣 徐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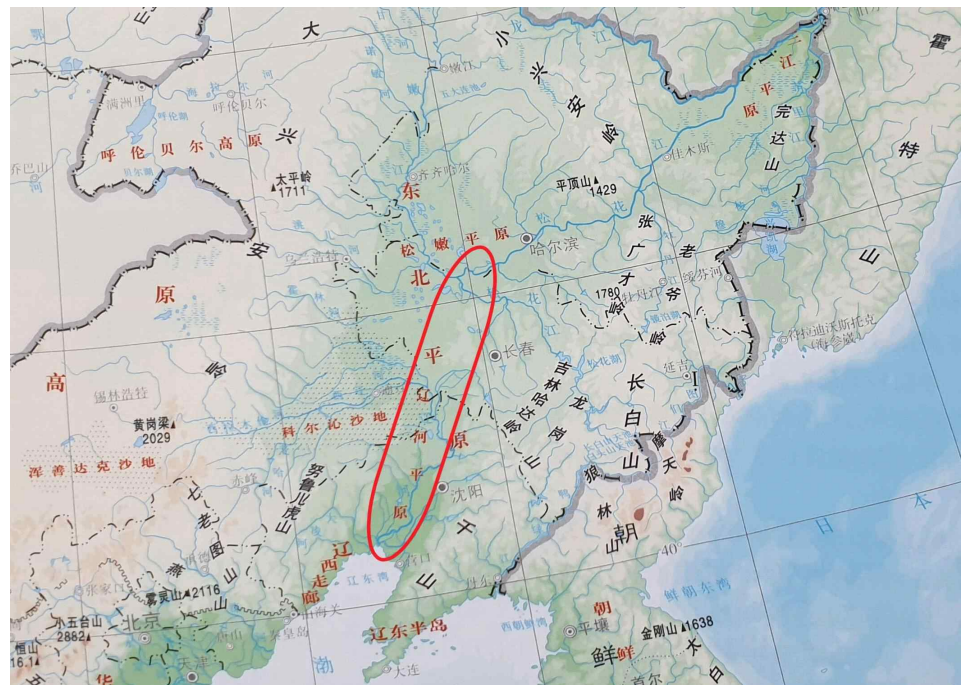
遼寧語熙曰, “汝國興新羅地, 高勾麗之地, 我所有也, 而汝侵蝕之. 又與我連壤, 而越海事宋, 故有今日之師. 若割地以獻, 而修朝聘, 可無事矣.” 熙曰, “非也. 我國即高勾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若論地界, 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女真盜據其間, 頑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不通, 女真之故也, 若令逐女真, 還我舊地, 築城堡通道路, 則敢不修聘? 將軍如以臣言, 達之天聰, 豈不哀納?”

62) 고구려 시대의 압록강인 요하를 句驪河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扈從東巡日錄』, 庚子, 駐蹕遼河, 又名 句驪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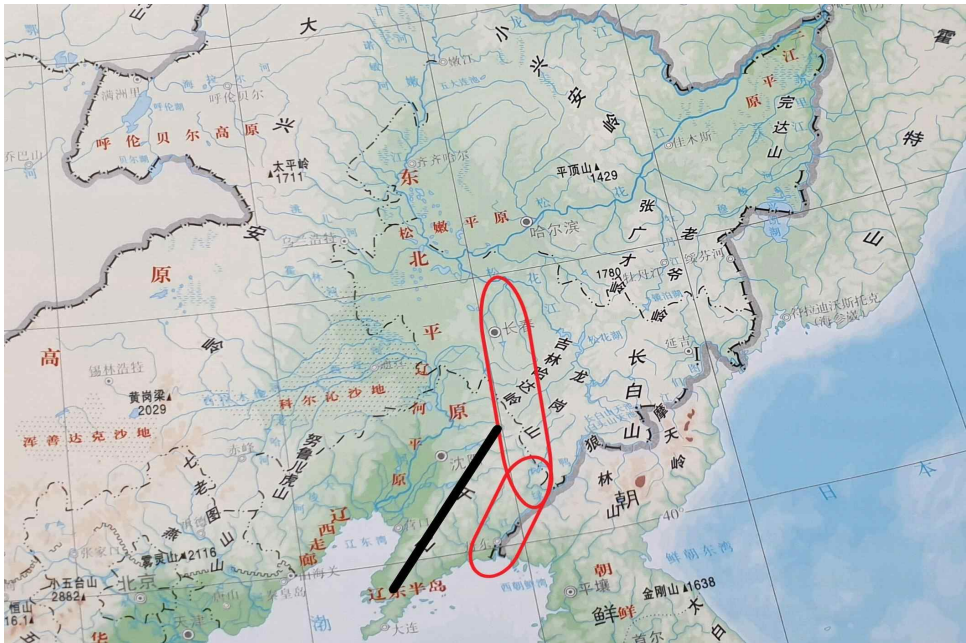
63) 『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冊」, 九台·德惠·遼源市 유적현황.

위의 자료에 기재된 길림성의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德惠市와 九台市에서 요·금시기의 고려산성과 둔전지가 각각 2곳씩 발굴되었다. 이곳은 飲馬河가 흐르는 지역으로 서쪽의 농안현으로 가려면 이통하를 건너가야만 한다. 이처럼 고고발굴사항을 통해서도 고려와 요·금시대의 경계인 압록강은 이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져 온 압록강 줄기가 발해의 멸망과 함께 요에게 발해만으로 통하는 요하 지역의 압록강을 상실한 시기다. 고려는 이후 요하 지역의 압록강을 수복하지 못하였는데, 금도 이 지역이 중요한 요충지였기에 요양을 차지하여 동경이라 하고 요하를 안민강이라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⁶⁴⁾



<지도1> 고구려 시기의 압록강(요하-이통하-송화강)



<지도2> 고려 초·중기의 압록강(이통하-휘발하-훈강-압록강)

64) 금 태조가 보주와 압록강 동쪽 땅을 고려가 다시 차지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건국 초기에 고려와 원
활한 외교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고려 중기의 압록강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발해 시대 압록강인 요하를 차지하는 것이 동계와 북계 지역의 물류를 중원으로 수송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는 요·금 시대를 거치며 국경을 확장하기 어려웠다. 즉, 고려 중기는 이통하 지역의 압록강을 유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시기의 압록강은 어느 강줄기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옛 오사채(烏舍寨)는 혼동강 곁에 세워져 있다. 강은 광대한 사막의 북쪽에서 흘러 오는데, 너무 멀어서 규명할 수 없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5백 리를 흘러가서 고려의 압록강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⁶⁵⁾

② 고려에서는 이 강(압록강)물이 가장 크다. 물결이 맑고 투명하여 지나는 나루터마다 모두 큰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를 천참(天塹)으로 여긴다. 강물의 너비가 3백 보(步)인데, 평양성(平壤城)에서 서북으로 4백 50리이고, 요수(遼水)에서 동남으로 4백 80리에 있다. 요수에서 동쪽은 옛날 거란에 소속되었는데, 지금은 그 오랑캐 무리가 이미 멸망되었고, 대금(大金)에서는 그 땅이 불모지(不毛地)이기 때문에 다시 성을 쌓아 지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한갓 왕래하는 길이 되었을 뿐이다. 압록강 서쪽에는 백랑, 황암 두 강이 있는데 파리성에서 2리쯤 가다가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이것이 요수다. 당나라 정관 연간에 이적이 남소(南蘇)에서 고구려 군을 대파하고 강을 건너가서 그 강물이 매우 얇고 좁은 것을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이것이 요수의 근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로써 옛날에는 이 강을 요새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려가 후퇴하여 압록강 동쪽을 확보한 것이 아니겠는가.⁶⁶⁾

<사료①,②>는 북송 시대 두 명의 관료가 2년의 차이를 두고 고려와 금을 다녀온 사행 기록이다. 당대의 지리 기록은 어느 사료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중기의 압록강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료①>은 1125년 허항종이 금 태종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이 되어 금의 수도인 상경회령부까지의 여정 중의 한 부분이다. 허항종이 말하는 오사채는 현재의 부여시(扶餘市)의 송화강 지역에 있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5백리 되는 곳은 현재의 화전시(樺甸市) 지역이다. 이 지역은 휘발하(輝發河)가 흐르는데 농안현의 이통하와 연결되어 배로 ‘농안-장춘-반석-화전’을 다닐 수 있다.⁶⁷⁾

65)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古烏舍寨，枕混同江湄。其源來自廣漠之北，達不可究。自此南流五百里，接高麗鴨綠江，注海。

66)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3, 「城邑」, 封境

此水(鴨綠之水)最大。波瀾清澈，所經津濟，皆艤巨艦。其國恃此，以爲天塹，水闊三百步。在平壤城西北四百五十里，遼水東南四百八十里。自遼已東，即舊屬契丹，今虜衆已亡。大金以其地不毛，不復城守，徒爲往來之道而已。鴨綠之西，又有白浪黃崑二水，自頗利城行數里，合流而南，是爲遼水。唐正觀間，李勣大破高麗於南蘇，既渡，怪其水淺狹問之，云是遼源。以此知前古未嘗恃此水以爲固，此高麗所以退保鴨綠之東歟。

67) 필자가 2019년에 이 지역을 답사하였는데, 당시의 몇 년 전까지도 이통하와 휘발하를 통해 심양까지

<사료②>는 1123년 서공이 국신사(國信使)로 고려를 다녀온 후, 송이 가지고 있던 자료와 고려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기록이다. 서공의 기록 중에서 압록강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1) 압록강은 강폭이 300보이다.
- (2) 압록강은 요수에서 동남쪽으로 480리 떨어져 있다.
- (3) 요수는 압록강 서쪽에 있는데 백랑·황암 두 강이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수로 들어간다.

먼저 요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현재 공주령시(公主嶺市) 모성자진(毛城子鎮)에는 소요수(小遼水)가 있는데 두 강물이 모여서 요하로 들어간다. 이 두 강이 서공이 말한 백랑(白狼)·황암(黃嶺)으로 여겨진다. 두 강의 가까운 곳에는 파리성자진(玻璃城子鎮)이 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480리 되는 곳은 현재의 매하구시(梅河口市) 지역이다. 이 도시에도 화전으로 이어지는 휘발하가 흐른다. 이곳에서 요하는 서쪽에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허향종과 서공이 말한 압록강은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같은 강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매하구시의 휘발하는 부이강(富爾江)을 통해 환인(桓仁)을 흐르는 혼강(渾江)으로 이어지고 이는 현재의 압록강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

3. 고려 후기의 압록강

몽골은 12세기 중엽이 되자 유라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13세기에는 중원을 공략하여 대원제국을 세웠는데 부마국이 된 고려도 원의 간섭을 받았다. 고려의 영토는 이 시기에 또 한 번 축소되었다. 그 이유는 1270년에 최탄과 이연령 등이 원종의 폐립 사건을 빌미로 서경을 포함한 60개의 성을 가지고 원에 귀부⁶⁸⁾하였기 때문이다.

원은 고려의 땅을 동녕부로 개편하여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키고 자비령을 고려와의 경계로 삼았다. 1369년, 공민왕이 동녕부를 되찾을 때까지 근 백년 간 압록강은 고려의 경계가 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친원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요·금 시대까지 유지되던 서북 경계는 지킬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원명교체기에 우왕과 최영이 요동정벌을 단행하여 수복을 노렸지만, 결국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명은 철령을 경계로 그 이남 지역의 압록강을 경계로 삼자 조선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압록강은 다시 변동될 수밖에 없었다.

가는 정기선이 운행되었던 매표소와 나루터 흔적들을 확인하였다.

68) 『高麗史』卷26, 「世家」卷第26, 元宗 11年 2月 丁丑

崔坦請蒙古兵三千來鎮西京, 帝賜崔坦·李延齡金牌, 玄孝哲·韓愼銀牌 有差. 詔令內屬, 改號東寧府, 畫慈悲嶺爲界.

① 장방평(張方平) 등이 침수참(淸水站)에 도착하니, 도사(都司)가 천호(千戶) 왕성(王成)을 보내 황제의 명령을 받아 적은 문건을 보여주었다. 그 문건에는 ‘지금부터 고려 사신의 오는 사람은 100리 밖에서 멈추고 돌아가도록 하고, 입국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다.⁶⁹⁾

② (명 철령위)는 홍무(洪武) 21년(1388) 3월에 옛 철령성(鐵嶺城)에 설치하였다. (중략) 동남쪽에는 봉집현(奉集縣)이 있는데 즉, 옛 철령성으로 고려와의 경계에 접해 있으며, 홍무 초년에 현(縣)을 설치했다가 곧 폐지하였다.⁷⁰⁾

③ 압록강은 도사성 동쪽 560리에 있다.⁷¹⁾

고려 후기의 서쪽 국경 관문은 침수참(淸水站)이었다.(사료①) 명은 고려에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고 봉집현(奉集縣)에 위소를 설치하였다.⁷²⁾(사료②) 명 태조는 ‘명은 원의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았다.’거나, ‘고려는 대대로 압록강을 경계로 해왔다’는 논리를 주장하며 철령 이남의 압록강을 조선과의 국경으로 삼았다. 명 태조의 주장은 고려의 영토 중 원대에 동녕부로 편입된 지역을 그대로 차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 중기까지의 압록강이었던 이통하를 제외하고 그 아래쪽 강줄기인 휘발하부터 압록강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후기의 압록강은 다시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의 영토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료③>은 압록강이 요양에서 동쪽으로 560리에 있는 도시를 흐른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지도에서 확인하면 현재의 환인(桓仁)이다. 이곳에는 혼강(渾江)이 흐른다. 따라서 <사료③>의 압록강은 혼강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고려 후기의 압록강은 휘발하와 혼강 줄기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69) 『高麗史』, 「列傳」卷第49, 禡王 13年 11月

張方平等行至淸水站, 都司使千戶王成, 欽錄聖旨, 以示之曰, 今後, 高麗國使臣來者, 於一百里外止回, 不許入境.

70) 『明史』卷41, 「志」17 ‘地理2’, 山東 遼東都指揮使司, 鐵嶺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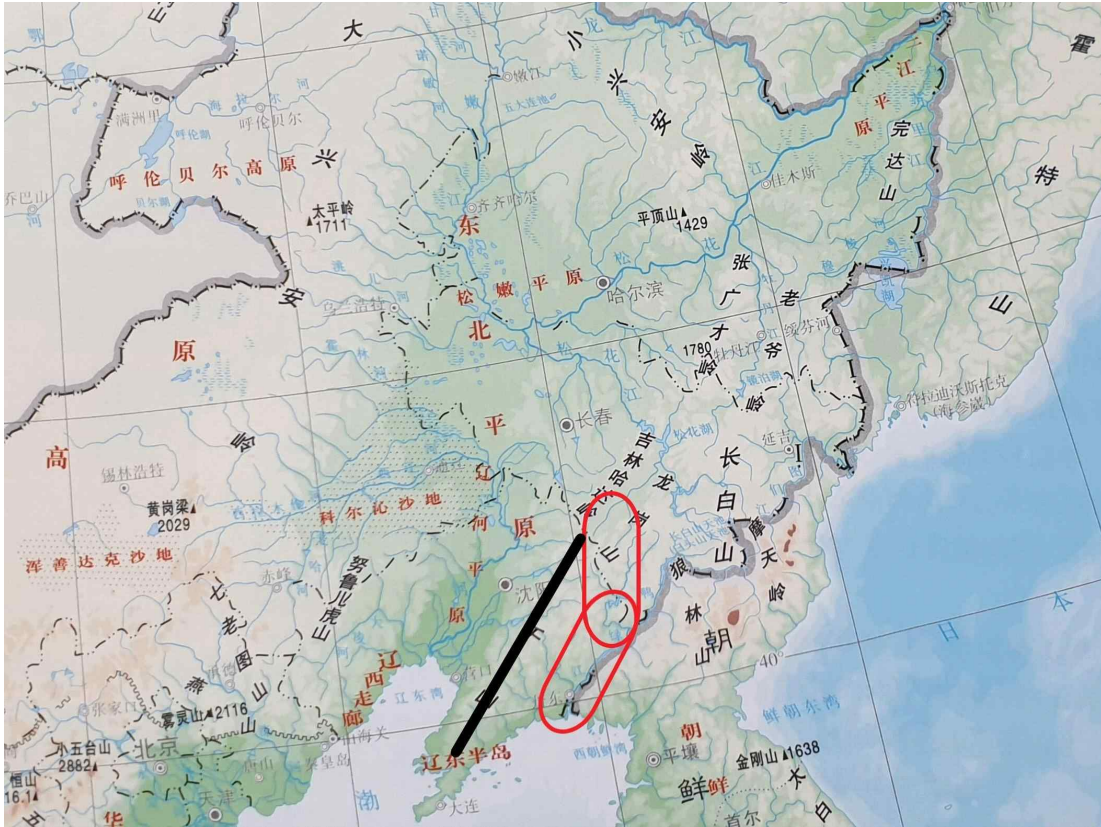
洪武二十一年三月以古鐵嶺城置. (中略) 東南有奉集縣, 即古鐵嶺城也, 接高麗界, 洪武初置縣, 尋廢.

71) 『大明一統志』, 「遼東都指揮使司」, 鴨綠江

在都司城東五百六十里.

72) 현재 심양의 동남쪽에 봉집보 터가 남아있다.

73) 『大明一統志』에서 鴨綠江을 휘발하가 아닌 혼강에 비정한 것은 휘발하가 당시 건주여진의 근거지인 파저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과 명은 모두 여진의 관리에 집중하여 자국에 이롭게 하려고 애썼는데, 조선은 10처 여진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저강까지 조선의 영토로 보아야 한다. 반면, 명은 여진을 조선에게서 분리시켜 조선의 견제세력으로 삼으려고 하였고 휘발하를 압록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도3> 고려 후기 · 조선 초기의 압록강(휘발하-혼강-압록강)

4. 조선 초기의 압록강

조선은 명과 연산관을 국경으로 정하였다. 연산관은 천산산맥 줄기에 있는 관문으로 고려 후기의 관문이었던 첨수참에서 동쪽으로 40여 리의 거리다. 명 태조는 고려 말에 철령위 문제를 일으켜 철령 남쪽 지역만 고려의 영토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요동 지역을 차지하였다.

명 태조가 철령위를 처음 설치하였던 봉집보에서 연산관까지는 대략 180리이다. 그는 조선과의 국경협상에서 이 거리만큼의 영토를 넓힌 것이다.⁷⁴⁾ 명 태조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지역은 요령성 본계(本溪) 지역이다. 이곳은 용강산맥과 장백산맥 인근 지역에서 요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며 이는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인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은 봉집보가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동반도 전체를 방어하기에도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장소다. 명 태조가 조선과의 국경을 연산관으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건국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 시급했기에 명과의 국경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은 명 태조의 일방적인 조치를 인정

74) 이후 명나라는 조선사신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경관문을 連山關에서 鳳凰城으로 옮겼는데 이 역시 동쪽으로 180리 되는 지점이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 건국과정에서 영토의 축소는 있었지만 초기의 압록강은 고려 후기의 압록강과 변동이 없었다. 이 시기에는 압록강의 지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은 압록강이 국가 간의 경계를 이루지만 ‘압록강 안팎으로 영토가 있다’는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효한 근거를 제시해준다. 즉,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은 본류를 말하는 것인데 본류로 들어가는 지류를 포함하는 지역도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압록강의 이칭으로 적강과 애하가 있으며 이 강이 흐르는 봉황성 앞까지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조선 중기의 압록강

조선 중기 시기의 중원은 명·청 교체기를 거쳤다. 조선은 초기인 태종 시기에 10처 여진을 관할하였다. 이 지역은 대체로 휘발하와 장백산 및 용강산맥 일대에 거주하는 여진족이었다. 그런데 중기에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의 국력이 쇠약한 때를 타고 건주여진의 누루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며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⁷⁵⁾ 급기야 1616년에는 후금을 건국하고 명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20여년 만에 명을 멸망시키고 국호를 청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급변 상황에서도 조선은 대명사대주의를 고수하여 청에게 두 번의 호란을 겪으며 국력은 더욱 피폐해졌다.

청의 건국과 함께 조선의 경계는 또다시 변동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 초기 10처 여진의 관할지역을 중기에 와서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계로서의 압록강인 휘발하 지역이 청의 강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초, 청 강희제는 서구의 선진적인 지도제작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영토를 지도로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주변국인 조선의 지도도 남겼다. 이 지도 제작에 참가했던 프랑스의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 전도」⁷⁶⁾를 살펴보면 조선 중기의 압록강의 흐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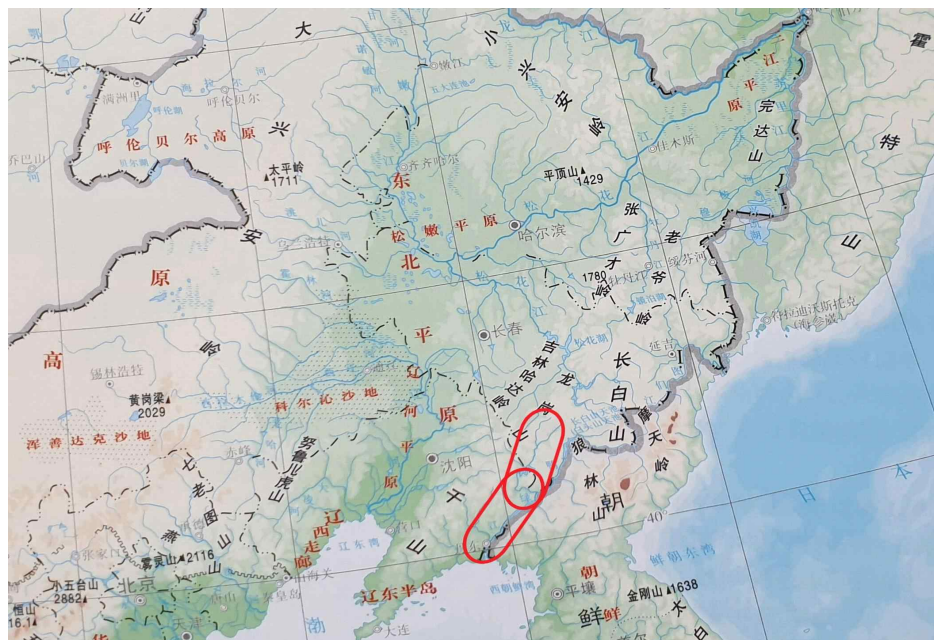
75) 당시 건주여진의 근거지는 파저강이었는데, 파저강은 현재의 휘발하이다. (허우범, 『여말선초 서북국 경과 위화도』, (서울:책문, 2021), 314-350쪽 참조.)

76) D'Anville, J. B., 'ROYAUME DE COREE',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e Tibet*, Paris, 1737.



<지도4>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중 평안·함경도 부분>

위의 지도에서 보듯이 당빌은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를 현재의 중국 요령성과 길림성 지역까지 표시하였다. 평안도의 국경 지역은 혼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데, 혼강의 본류는 현재의 압록강으로 이어지고 혼강의 지류는 현재의 애하와 이어진다. 실록의 기록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⁷⁷⁾ 또한, 혼강이 휘발하와 연결되는 부분은 청의 강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4>를 통해서 조선 중기의 압록강은 혼강과 현재의 압록강으로 변동되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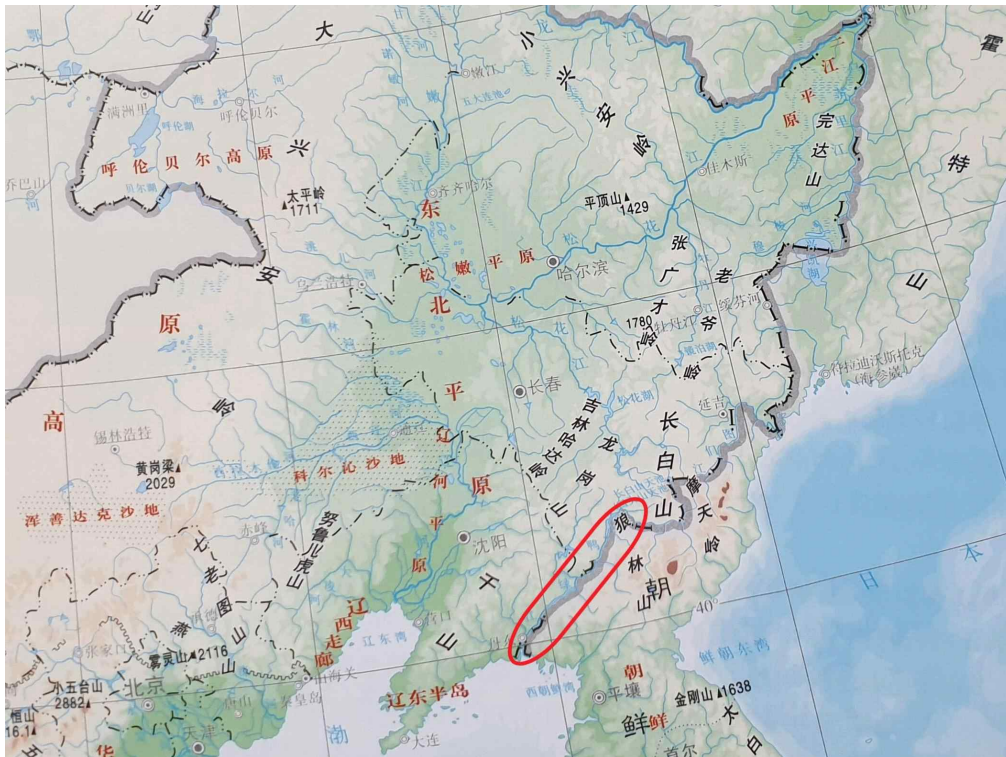


<지도5> 조선 중기의 압록강(혼강-압록강)

77)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29, 영조 7년 6월 29일.
 ‘蓋此草，髮兩河匯入之地，卽係小邦邊界，而小邦邊氓.’

6. 조선 후기의 압록강

청은 강희제 때 장백산 일대를 측량하고 1712년에 정계비를 세워 조선과의 경계를 정하였다.⁷⁸⁾ 더 나아가 청은 자신들의 발상지인 장백산 일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주 지역을 봉금 조치하기에 이르렀다.⁷⁹⁾ 청의 봉금정책이 선포되자 힘없는 조선은 현재의 압록강 바깥에 위치한 주민들을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 시대 내내 시행되어 온 공한지정책을 더욱 편하게 수행하는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⁸⁰⁾ 조선이 압록강 안쪽으로 군현 지역을 이동하자 조선과 청의 경계인 압록강도 자연히 변동될 수밖에 없다. 이후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고 마침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현재의 압록강이 국경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도6> 조선 후기와 현재의 압록강

이제까지 경계로서의 압록강의 이동을 통하여 고려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우리 강역의 축소과정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78) 『朝鮮王朝實錄』「肅宗實錄」51, 숙종 38년 5월 23일.

79) 청의 만주지역 봉금정책은 이들의 경제적 기반인 인삼(人蔘)과 동주(東珠), 담비 등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80) 조선은 명·청과의 국경 분쟁을 방지하고자 초기부터 줄곧 국경지역의 일정 지역을 비워놓는 공한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강역을 침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표3> 경계로서의 압록강 분류와 시대별 축소 현황

시대구분		국경상대국	압록강 분류	축소 원인
고구려·발해		-	송화강, 이통하, 요하	-
고려	초기	요	이통하, 휘발하, 혼강, 압록강	강동6주
	중기	금	이통하, 휘발하, 혼강, 압록강	-
	후기	원, 명	(이통하), 휘발하, 혼강, 압록강	동녕부
조선	초기	명	휘발하, 혼강, 압록강	철령위
	중기	명, 청	(휘발하), 혼강, 압록강	봉금정책
	후기	청	압록강	일제

V. 맺음말

이제까지의 압록강 연구는 일정한 지역에 위치한 하나의 강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연구하여 왔다. 현 학계가 주장하는 현재의 압록강이나, 최근 요하가 고대의 압록강이라는 새로운 연구 성과에 이르기까지 국경으로서의 압록강 연구는 모두 하나의 강줄기를 지칭하였다. 모든 지명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이동하기 마련이다. 특히, 국경지대의 지명은 전쟁이나 반란 등을 통한 영토의 확장과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압록강은 고려 시대 이후 줄곧 국경의 역할을 하였다. 국경의 변화와 지명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압록강 역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은 어느 하나의 지정된 강으로만 보아서는 시대별 강역과 국경의 변동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 압록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압록강(鴨綠江)이라는 명칭 자체가 내포한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 ‘압록(鴨綠)’이라는 한자는 ‘알루(Yalu)’를 음차한 것인데, 이 알루의 뜻이 ‘경계(境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압록강을 어느 특정한 강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경계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파악하여 새롭게 고찰하였다. 압록강을 경계의 강으로 살펴볼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하나의 강줄기만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 간에 정해진 경계는 산과 강 등 자연물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경계를 나누는 압록강도 마찬가지다. 즉, 압록강은 양 국가 간에 약속한 국경 지대를 따라 이어지는 물줄기의 연결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줄기가 아닌 여러 개의 강줄기가 선처럼 이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때 강물의 흐름이 어느 쪽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강줄기의 연결이 곧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을 답사하여 보면 현재의 압록강이나 요하는 물론 대부분의 중요한 강들은 지류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지도로만 보는 강줄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을 잘못 이해하여 왔던 것이다. 압록강을 하나의 강줄기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의 강역과 국경의 변동을 사실적으로 고찰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압록강에는 여러 이칭이 있다. 이러한 이칭은 한 지역이나 하나의 압록강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시대별 강역의 변동에 따른 새롭게 결정된 압록강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불러온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압록강의 이칭은 서로 다른 강들의 토속어이며 이러한 이칭의 위치를 검토하면 시대별 압록강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사서에 보이는 청하, 안민강, 압자하, 혼동강, 익주하, 적강, 애하 등의 이칭을 검토하고 그 위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압록강의 변동을 추적하였고, 이는 결국 우리 영토의 축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즉, 고려의 강역이 요·금 시기에는 길림성의 이통하 지역까지였으나 원·명 시기에 이르러서는 휘발하 지역으로 변동되었다. 이는 서경을 포함한 60개의 성이 반란을 일으켜 원에 귀부하여 이 지역이 원의 동녕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명 또한 원의 영토를 그대로 차지하였기 때문에 고려는 이통하 지역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고 압록강은 휘발하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명과의 강역은 고려 후기와 변동이 없었다. 중기에 들어와 휘발하 지역에 산재하던 여진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한 후 나라를 세우고 명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여진이 청을 건국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자 조선은 휘발하 지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압록강은 혼강 지역으로 변동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청의 봉금정책과 조선의 국경지대 공한지정책이 맞물려 행정 치소가 모두 현재의 압록강 안쪽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이후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놓이게 되고 마침내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현재의 압록강이 국경이 되어 만주 일대의 영토를 모두 상실하게 된 것이다.

압록강은 우리의 역사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강이다. 이러한 까닭에 압록강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압록강 연구는 하나의 강에만 집중한 까닭에 시대별로 압록강과 연관된 역사지리는 그 강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 해석과 지리 비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국경으로서의 압록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압록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살펴보아야만 보다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압록강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따른 압록강의 변동과 영토의 축소를 살펴보며 압록강 연구의 새로운 시각과 그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시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고려 시대 이후 압록강 본류가 시대별로 축소된 것만을 살펴보고, 압록강 본류의 이동은 고찰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추후에 보완하여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1. 원전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應制詩注』, 『新增東國輿地勝覽』, 『隋書』, 『舊唐書』, 『新唐書』, 『通典』, 『渤海國記』, 『資治通鑑』, 『宣和奉使高麗圖經』,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武經總要』, 『遼史』, 『契丹國志』, 『金史』, 『鴨江行部志』, 『元史』, 『明史』, 『大明一統志』, 『遼東志』, 『清史稿』, 『欽定滿洲源流考』, 『欽定大清一統志』, 『吉林地志』

2. 논저

복기대 외,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 주류성, 2017.
볼로쉬노프 지음, 송기한 옮김,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5.
소쉬르 지음, 최승언 옮김,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2006.
吳洛, 『中國度量衡史』, 경인문화사, 1989.
윤한택, 『고려 국경에서 평화 시대를 묻는다』, 더플랜, 2018.
윤한택, 복기대, 『압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이기백,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9.
이득재, 『바흐쥘 읽기: 바흐쥘의 사상·언어·문학』, 문학과학사, 2003.
이병도, 『한국사대관』, 보문각, 1964.
이훈 편저, 『滿韓辭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허우범, 『여말선초 서북 국경과 위화도』, 책문, 2021.
稻葉岩吉 외, 『滿洲歷史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津田左右吉 외, 『朝鮮歷史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고광진, 「고구려시대의 압록수 위치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김상보 외, 「고대 한국의 도량형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4, 1994.
김순배 외,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연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대한지리학회지』43-4, 2008.
김영섭, 「고려 서북면 경계 재검토-강동6주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62, 2019.
남익현, 「중국의 중조변계사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압록수(압록강)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57, 2018.
허우범, 「위화도 위치의 재고찰」, 『인문과학연구』62, 2019.

3. 기타(지도 및 포털사이트)

中國國家文物國, 『中國文物地圖集』「吉林省」, 西安地圖出版社, 2008.
黃曉風 외, 『中國地理地圖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2.
D'Anville, J. B., 'ROYAUME DE COREE',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e Tibet*, Paris, 173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國學大師(<http://www.guoxuedashi.com>)

【Abstract】

"A Tentative Study on the Yalu River" **-Centered on the Concept of 'Boundary'-**

HER, WOO-BUM (INHA UNIV.)

The Yalu River is a crucial geographical feature in the study of our territorial history. Until now, research on the Yalu River has treated it as a proper noun referring to a single river located in a specific region. However, all place names are subject to change over time. Particularly, place names in border areas undergo significant shifts due to territorial expansions and contractions caused by wars or rebellions. The Yalu River has continuously served as a border since the Goryeo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ing borders and shifting place names, the Yalu River, too, must have moved. Therefore, examining the Yalu River solely as a fixed river designated as a border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territorial and border changes over different periods. A new perspective and consideration of the Yalu River as a border are necessary.

This paper addresses the contradictions and issues of the Yalu River as a border, perpetu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colonial historiography, and examines the need to reassess the border changes resulting from the shifting of the Yalu River over time. In other words, it i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how to study the Yalu River."

To achieve this, the author redefines the concept of the Yalu River and, based on this redefinition, analyzes its various aliases and contemporary historical geography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Yalu River. Furthermore, the paper aims to propose new methodologies for future research on the Yalu River in our territorial history.

*Key words : Yalu River, Variant name, border, Goguryeo, Goryeo, Joseon